

## 우창의 안녕 이렇게

###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대학생이 쓴 대자보가 전국에 퍼지면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창도 안녕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창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적 원인으로 경영진의 능력과 회사경영의 불투명함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압도적이었고 외주업체관리문제 개선과 한일대화와 대동 등 관계사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영진과 관련해서는 사장이 밝힌 회사의 새로운 아이템을 따 오는 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회사발전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도 안녕 원해요

많은 분들이 우미창창의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라는 분들도 있습

니다. 일부에서는 “사장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는 약간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우창의 미래가 창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창지회는 모두의 뜻을 모아 미래를 열기위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작년 SJM에서도 회사는 적자타령을 했지만 알고 보니 종이회사와 해외제품가격 높여 외국공장 이익은 부풀리고 국내공장이익은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파괴한 KEC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창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진짜 소통은 바로 투명경영입니다.

**둘째, 외주업체 관리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관리메뉴얼을 제시해서 공유합시다.** 열심히 일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손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셋째, 물량확보에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장 물량이 부족하니 대동 것이라도 가져와서 채워야”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갈 순 없잖습니까. 2015년 현대물량 따온다는 얘기가 나돌지만 그 때까지도 문제고 그때 되어서도 확실한 대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회사의 종합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창의 미래 종합비전을 만들고 직원모두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장의 약속들에 대해 의심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소통하면  
불신 넘어 확신을 갖지 않을까요?



### 이런 소통 합시다

**첫째, 투명경영을 위해 해외, 국내 관계사 등 상황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합시다.**

중국의 소주하청은 2007년 일본자본지분을 우창이 22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인수했습니다. 그 곳에서 나온 이익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당연하겠지요.

# 레알 상생 제안

## 진짜 상생 이거 맞죠?

비조합원만 특혜 주는 것은 “나만 살자”입니다. 조합은 죽이고 비조합원만 살리겠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권리를 인정하며 “함께 살자”고 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일하는 우리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 있습니다. 노동권을 부정하면서 소유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너 죽고 나살자”는 것입니다.

## 심리전 아니겠죠?

현대전쟁에서 심리전이 굉장합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하드파워인 무기와 군사력이 중요했지만 현대전에서는 문화, 정보 등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CIA가 대표적입니다. 정보를 왜곡하고 인터넷 댓글을 비롯해 일단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심리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립된 상대를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이라크전쟁도 그 사례였습니다.

한국도 배웠습니다. 국정원이 댓글을 달고 국방부 심리전단이 댓글알바를 통해 야당과 진보를 악마로 만듭니다. “종북”이로 만들어서 혐오감을 일으켜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 “종북

좌빨”이라며 구속하는 식입니다.

삼성을 비롯해 기업도 이런 심리전을 펍니다. 노조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노조를 악마로 만듭니다.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식입니다.

## 우린 믿습니다

사장님의 간담회, 밴드활용, 장터개설, 금속노조 때문에 물량따기 어렵다는 얘기 등. 우린 회사가 조합원빠가기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심리전을 잘못된 미국은 아프칸전쟁에서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종북몰이 심리전단 댓글알바로 한국의 정치는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

“서럽고 분한” 사람들을 만들면 안됩니다. 갈등과 차별을 부추기면 회사는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공장안 사원들 사이에 38선을 그으면 안됩니다

2010년 직장폐쇄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였습니다. 노동권이 극단적으로 부정되는 사태였습니다. 성찰 없는 심리전은 우창의 미래를 안녕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찰해야 넘어섭니다. 함께 넘어서야 합니다.

한일이화도 금속노조 있고 금속노조 있는 회사들 잘 나간다는 것을 알잖습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 듣는 조합원들은 거북하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한일이화, 대동, 우창의 노사가 함께 모이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관계사 모두의 안녕할 수 있는 방법, 관계사 모두의 비전, 그리고 노조에 대한 거북한 이유와 해소방안을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장님 어때요?



## 더 깊게 보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원들의 갈등원인과 극복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것입니다. 우창의 모든 사원들과 그 결과를 우미창창 3호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미창창 4호에서는 종합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눌 얘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안녕을 위해.

## 제안합니다

여전히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일이화 등의 관계자들이 “우창에 금속노조가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한다면서요.

